

불규칙 박자의 부정맥

조정관 /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지난 호에는 부정맥의 증상과 그 진단에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 검사 중 일반 심전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다른 검사 방법과 부정맥의 치료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맥의 진단에 이용되는 검사

활동 중 심전도 (홀터 심전도)

부정맥이 오래 지속하지 않아 일반 심전도로 기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일반 심전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활동 중 심전도입니다. 이는 휴대용 녹음기와 같이 생긴 기록장치를 부착하여 24~48 시간 동안 활동 중에 일어나는 심장의 모든 전기적 현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활동 중 심전도는 기록 시간이 일반 심전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기 때문에 부정맥을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전기생리검사

심전기생리검사는 부정맥의 종류 및 원인 기전을 규명해 주는 부정맥의 최종적인 검사입니다. 근래에는 이 검사법을 이용하여 부정맥을 완치하는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심전기생리검사는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와 전문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모든 병원에서 가능한 검사는 아닙니다.

심전기생리검사는 심장에서 발생하는 전기 현상을 기록하고 또한 심장을 외부에서 심장자극기로 자극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전극도자라고 하는 부드러운 전선과 같은 것을 서혜부나 팔의 혈관을 통해 심장의 중요 부위에 위치시켜 놓고 시행합니다. 따라서 이 검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입원이 필요하게 됩니

다. 심전기생리검사가 최종적인 검사이기는 하지만 모든 부정맥 환자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검사의 적응 여부는 전문의사의 판단에 맡기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부정맥이 병력이나 심전도 분석만으로 확진이 가능하므로 심전기생리검사가 근래에는 단순한 진단 목적보다는 고주파를 이용한 전극도자 절제술로 부정맥을 근치할 치료 수단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맥 치료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부정맥의 치료방법은 단순히 환자를 안심시키는 것에서부터 약물치료, 악화인자의 제거, 전기적 치료, 수술적 치료 등 다양합니다. 각 치료법의 적응은 부정맥의 종류, 임상표현, 기저 심질환에 의해 결정됩니다. 먼저 이들 부정맥의 치료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 위안

환자에서 발견된 부정맥이 양성이어서 환자의 예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심한 증상도 일으키지 않을 때는 부정맥을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계항진, 불안 등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일단 그러한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아무런 중대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치료를 받거나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루틴 심전도나 활동 중 (홀터) 심전도로 우연히 발견된 심실기외수축

(PVC)이나 심방기외수축 (PAC), 그리고 무증상성 부정맥의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환자가 울동이상을 인지하여 심장마비의 전조로 생각하는 등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으나 절대로 그렇지 않으므로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악화 또는 유발인자의 제거

부정맥을 악화시키거나 유발시키는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심실기외수축 (PVC), 심방기외수축 (PAC), 심방세동 등은 음주, 흡연, 커피, 정신적 스트레스, 과로 등에 의해서 악화되거나 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인자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값싸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따라서 부정맥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하는 인자가 무엇인지 찾으려는 노력을 최대한 하여야 합니다.

(3) 약물치료

부정맥 중에서 항부정맥제를 이용한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이상이 발견되면 흔히 약으로 치료하려고 하지만, 약물치료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부정맥에 대한 약물치료의 득과 실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것은 모조리 쏜다”는 식으로 부정맥을 치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4) 전기치료

전기치료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모든 종류의 치료를 일컫는 말입니다. 전기치료에는 크게 서맥성 부정맥에 대한 인공 심박동기에 의한 심조율치료와 빈맥성 부정맥에 대한 직류 충격과 부정맥의 해부학적인 소재를 제거하여 부정맥을 완

치하는 전극도자 절제술이 있습니다. 항부정맥 약물치료의 문제점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약물치료가 권장되고 있는데 이중 전기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고 대표적인 치료법입니다. 특히 증상이 있는 서맥성 부정맥에 대해서는 심조율치료가 유일한 치료이며 발작성 심실상성빈맥증 (PSVT)의 대부분은 전극도자를 이용한 전기적 절제술로 95% 이상의 성공률로 완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 수술치료

일부 부정맥은 수술에 의해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만 근래에 전극도자 절제술이 크게 발전하여 심실빈맥이나 심방세동을 비롯한 심방성 빈맥을 제외하고는 성공률이 90% 이상으로 수술치료 성적을 능가하여 수술적 치료는 전극도자 절제술이 실패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정맥은 무증상 에서부터 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매우 흔한 심장질환이나 90% 이상이 부정맥 당시의 심전도의 체계적인 분석으로 확진될 수 있으므로 부정맥 당시의 심전도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파악하고 있는 부정맥 발작 시 임상적 특징 및 맥박의 변화가 결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부정맥 발작이 의심될 때에는 자신의 맥박을 촉진하여 보고 맥박에 이상이 있으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정맥은 쉽게 진단되고 곧바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재발하는 부정맥은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경험이 많은 심장내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